

## 체인스모커스 “한국은 제2의 집 같은 느낌”

오는 9월, 한국 공연을 앞둔 체인스모커스(The Chainsmokers·사진)가 “한국은 제2의 집 같은 느낌이 든다.” 고 말했다.



알렉스 폴과 앤드루 태거트2명의 DJ 겸 프로듀서로 이뤄진 세계적인 일렉트로닉댄스뮤직(EDM) 듀오인 체인스모커스는 지난 30일 “한국 팬들은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한국은 제2의 집 같은 느낌도 든다.” 며 “9월에 열린 한국 공연에서는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한 쇼를 준비하고 있다.” 고 말했다.

2014년 발표한 싱글 ‘#셀피’ (#Selfie)가 빌보드 핫 댄스/일렉트로닉송 차트 1위를 차지하면서 주목받은 체인스모커스는 2016년 할사가 보컬로 참여한 ‘클로저’ (Closer)로 빌보드 싱글 차트 12주 연속 1위에 오르는 기록을 세웠다. 이들은 2015년 글로벌개더링 코리아 무대로 한국을 처음 찾았고, 2017년 첫 단독 내한공연을 했다. 당시 서울 공연에 방탄소년단이 깜짝 합동 무대를 가졌다.

체인스모커스는 방탄소년단의 미니앨범 ‘러브 유어셀프 승-허’ (LOVE YOURSELF 承-Her)의 수록곡 ‘베스트 오브 미’ (Best Of Me)를 공동작업했다. 알렉스 폴은 BTS에 대해 “정말 열정적이고 능력 있는 친구들이고 음악과 공연을 즐길 줄 아는 재미있는 그룹”이라며 “큰 성공을 거두고 점은 정말 존중할 만하고 응원하고 싶다.” 고 말했다.

체인스모커스는 지난해 미국 최대 연말 라디오 쇼인 아이하트라디오 주최 ‘징글볼’ (Jingle Ball) 투어에 K팝 그룹 최초로 참여한 그룹 몬스타엑스와 무대를 꾸미기도 했다. 알렉스 폴은 “몬스타엑스와도 앞으로 곡을 작업하고 싶다.” 며 “블랙핑크와도 함께 작업해보고 싶다. 실력 있고 에너지가 넘치는 그룹이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 몬스타엑스, 미국 유명 음반사와 계약 체결

그룹 몬스타엑스(서누, 원호, 민혁, 기현, 형원, 주현, 아이엠·사진)가 미국 유명 음반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몬스타엑스는 최근 미국의 유명 음반사 에픽 레코드(Epic Records)와 레코드계약을 체결했다. 몬스타엑스와 계약을 체결한 에픽 레코드는 향후 몬스타엑스가 발표하는 영어 음반 발표와 월드와이드 유통을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에픽 레코드는 미국의 대형 음반사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의 레이블로, 1953년 창립 이래 그래미상을 수상한 멀티 플래티넘 아티스트들과 영향력 있는 아이콘들과 함께 하고 있다.

특히 마이클 잭슨, 조지 마이클, 셸린 다운, 보스턴, 펄, 글로리아 에스테판 등 음악 시장의 판도를 바꾼 슈퍼스타들의 본거지로서 역사를 쌓아오고 있으며 머라이어 캐리, 아웃 카스트, 오지 오스본, 세이드를 비롯해 지금은 현재 최고의 아티스트인 디제이 칼리드, 카밀라 카베요, 트래비스 스캇, 퓨쳐, 프렌치 몬타나, 21새비지, 메간 트레이너 등이 소속돼 있다.

이번 계약 체결에 관해 에픽 레코드의 C.E.O 실비아



론(Sylvia Rhone)은 “K팝은 전 세계적으로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글로벌한 대화 주제 거리”라며 “그 대화 맨 위에 몬스타엑스가 있다.” 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몬스타엑스는 그들의 경험, 열정, 다양한 영향력에 맞는 독창적인 스타일로 장르의 미래를 이끌어 가고 있으며 이들이 에픽 레코드의 식구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며 몬스타엑스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몬스타엑스는 오는 8월까지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유럽, 북남미 등 세계 18개 도시에서 월드투어 ‘위 아 히어’ (WE ARE HERE)를 펼친다.

## 효린,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

가수 효린(본명 김효정·29)이 과거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효린이 15년 전 중학교 때 학교폭력을 가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글이 올라왔다.

올해 서른 살이라는 이 누리꾼은 “효린에게 15년 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년간 끊임없이 학폭(학교폭력)당한 피해자”라며 “상습적으로 옷, 현금을 빼앗기고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저를 아파트 놀이터에서 폭행했다.” 고 주장했다. 그는 “효린이 나를 폭행한 이유는 본인의 남자친구 이름이 내 남자친구의 이름과 같아서였다.” 라고 밝혔다.

그는 또 “3년 동안 내 자신이 자살을 안 한 게 신기할 정도로 버텼다. 하룻길에는 효린의 화풀이 대상이 돼야 했기에 교통사고라도 났으면 싶었다.” 며 “효린이 가수 가 됐다는 소리를 듣고 까무러치게 놀랐다. 이후 다이렉

트 메시지를 통해 사과를 하라고 장문의 글을 보냈는데 답장은 없었다.” 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 친구를 노래방으로 불러 마이크로 머리까지 때렸다.” 며 “때릴 땐 항상 본인을 한 대 때리게 시켰다. 쌍방이니까.” 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술, 담배는 기본이었다. 가해자가 뿔뿔하게 TV에 나와서 이미지를 세탁하고 활동하는 꼴이 역겹다.”라며 효린의 당시 졸업 사진 모습 등을 공개했다.

논란이 되자 소속사는 “온라인에 게재된 효린에 관한 글을 접했으며 효린은 15년 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상황이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고 말했다. 또 “해당 글을 올리고 피해자라 주장하시는 분을 직접 찾아뵙 생각이며,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고 덧붙였다.

2010년 씨스타 메인 보컬로 데뷔한 효린은 2017년 6월 팀 해체와 함께 1인 기획사 브리지를 설립하고 홀로 서기했다.

MY BABY. MY STYLE.  
**gemgem**



Passionate about your baby?

**SO ARE WE!**



Clothing/ Toys/ Gear/ Room/ Feeding/ Gift/ Organic  
**www.egemgem.com** T: 949.529.0715